

# 제주 여성 월평균 임금 남성의 72.3% 수준

### 제주여가원, '2025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약 88만원 임금 차... 4년 새 임금 증가 폭은 여성 높아 경력 단절 사유 50세 미만 육아, 50-54세는 가족 돌봄

제주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72.3% 수준으로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수록된 '2025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을 발간했다. 연구진은 국가데이터, 행정안전부, 제주도 등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용해 인구와 가족, 교육과 교육, 경제 활동, 건강과 복지, 사회참여와 문화, 안전과 환경 분야로 나눠 각종 통계와 지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비율은 9.5%(1만 명)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력 단절 사유는 육아 47.8%, 결혼 23.4%, 임신·출산 14.4%, 가족 돌봄 8.9%, 자녀 교육 5.5%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은 육아, 50-54세는 가족 돌봄이 주된 사유로 꼽혔다. 특히 임신·출산·육아를 합한 경력 단절 비율은 15~29세 100%, 30~39세

69.0%였다.

2024년 기준 취업자는 39만8000명(여 18만7000명, 남 21만1000명)으로 여성이 2만4000명 더 적다. 성별 차이는 40대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30대, 50대 순이었다. 30대의 격차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영향이라고 했다.

2025년 기준 여성 취업자의 종사직종은 서비스 20.7%,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20.1%, 단순 노무 16.7%, 사무 15.8%, 판매 13.1% 등이다. 남성의 경우엔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14.9%, 단순 노무 1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3%, 사무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229만2000원, 남성 317만1000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7만9000원이 더 적었다. 다만 2020년 대비 월평균 임금은 여성 19.9%, 남성 10.7%가 늘어 여성의 증가 폭이 컸다.

2024년 기준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비율은 41.9%, 여성 종사자 비율은 47.8%로 최근 3년간 사업체 대표자와 종사자의 여성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남성보다 여성 대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63.6%), 숙박·음식점업(56.1%)에 그쳤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제주경찰·지자체·선관위 무분별·혐오 현수막 대응 공조체계 구축

제주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최근 간담회를 갖고 무분별·혐오 현수막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청에서 현수막 관련 정보 공유와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경찰청, 제주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수막과 관련한 업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사례를 비롯해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공유 ▷규정 위반 현수막 적극 철거 ▷기관간 연락체계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수막 설치 기준과 제한 사항에서 일반 현수막은 신고 대상이며 지정 게시대에 설치, 10일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음란·퇴폐·사행성 광고는 불가하다. 정당 현수막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금지·제한 장소 외에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15일간 가능하다. 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 기재가 필요하고 음면동별 2개 내외로 제한한다.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 설치 및 제한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금지 ▷소방시설 주변 주차장 구간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2.5m 이상 설치 제한 등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제주 해안가 의문의 목선 서귀포서도 발견

### 12월 30일 대정읍 신도리서 월정리 선박과 유사한 형태 "무동력... 밀입국 정황 없어"

지난 12월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의문의 목선과 유사한 형태의 목선이 지난해 말에도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34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에서 목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안가 순찰을 돌던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목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길이 약 6m, 폭 2.1m 크기였으며, 철제로 기둥을 만들고 목재를 덧입힌 목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엔진이 없는 무동력 선박으로 앞서 이달 12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에서 발견된 선박과 구조가 거의 같은 형태였다.

선박 내부에선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월정리 선박과 달리 한자 등 글자가 표기된 것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월정리에서 발견된 선박보다 노후화와 파손이 심하고 동력장치가 아예 없어 밀입국



지난해 12월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에서 발견된 목선. 오승목 다크제주 감독 제공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를 저어야만 이동 가능한 선박인데 그간의 기상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밀입국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선박을 인계받은 서귀포시청은 오는 14일까지 방치물 제거 공고를 내 소유주를 찾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기 또는 제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 오전 8시 38분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에서는 한자가 적힌 의문의 목선이 발견됐다. 해경은 이 선박도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구좌읍사무소에 인계했다.

구좌읍사무소는 현재 해양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달 말 중으로 선박을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 친구 남매 기절시키고 집에 불지른 20대 구속 송치

친구 남매를 상대로 흥기를 휘두르고 거주지에 방화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친구인 20대 B씨와 그의 여동생 10대 C양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C양의 집에 방화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씨는 새벽 4시쯤 B씨에게 전화해 "집에 가도 되느냐"고 묻고 사전에 흥기를 준비해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친구의 집에 도착한 A씨는 B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하고, 장면을 목격한 C양에게도 둔기로 폭행해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이 의식을 잃자 가스레인지의 불을 이용해 방화했고, 불은 오전 8시쯤 완전히 꺼졌다.

B씨와 C양의 어머니는 거주지에 쓰러져 있는 자녀들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모래에 뒤덮인 도로 14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해변에서 쓸려 온 모래가 도로 위에 쌓이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 중장년 1인가구 중 4% 고독사 위험군 서귀포시, 작년 연말 조사서 229가구 추가 발굴

서귀포시 지역의 중장년(40~64세) 1인 가구 중 약 4%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2월 읍면동 주관으로 '중장년 1인 가구 1340명에 대한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를 벌여 위험군 229가구를 추가 발굴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고

립가구 조사표'를 활용해 방문 상담 방식으로 진행했다. 접수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8가구, 중위험군 69가구, 저위험군 152가구 등 총 229가구를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또 일반군은 243가구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조사표 총점은 0점이나 복지서비스 관련 연계를 요청한 가구다.

시는 추가 발굴된 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격적여,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 등 총 242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에 추가된 229가구를 포함해 서귀포시 지역의 중장년 1인 가구 중 위험군은 총 539가구다. 국가통계포털의 서귀포시 지역 중장년 1인 가구(2024년 기준)가 1만2769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4.2%에 해당한다. 또 중장년 1인 가구는 시 전체 1인 가구(2만6312가구)의 48.5%를 차지했다.

문미숙기자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 그랜드보청기

### '2026년 병오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푸를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리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 서광로 225 2층

##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땃나봉

###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호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